

2025 캐나다 밴쿠버 겨울캠프

캐나다 메이플리지 공립교육청 주관 캠프



캐나다 메이플리지 교육청

2025 WINTER CAMP

1. 캐나다 밴쿠버 캠프 소개

1) 지역소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안전한 치안, 그리고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합니다. 다민족 국가인 만큼 인종차별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년간 UN에서 조사한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고 있으며, 특히 높은 교육열, 안전한 생활환경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캠프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42번째 교육청, **메이플리지 교육청**에서 주최합니다. 메이플리지 교육청은 밴쿠버 공항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메트로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산층 캐나다인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선택하는 교육 중심 도시입니다. 백인 비율이 높아 영어 노출 빈도가 높고 국제 학생 비율이 낮아 영어 몰입 환경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 국명 - 캐나다 CANADA
- 수도 - 오타와 (Ottawa)
- 인구 - 약 4000만 명 (2024년)
- 언어 - 영어, 프랑스어
- 날씨 - 밴쿠버 1월 평균 기온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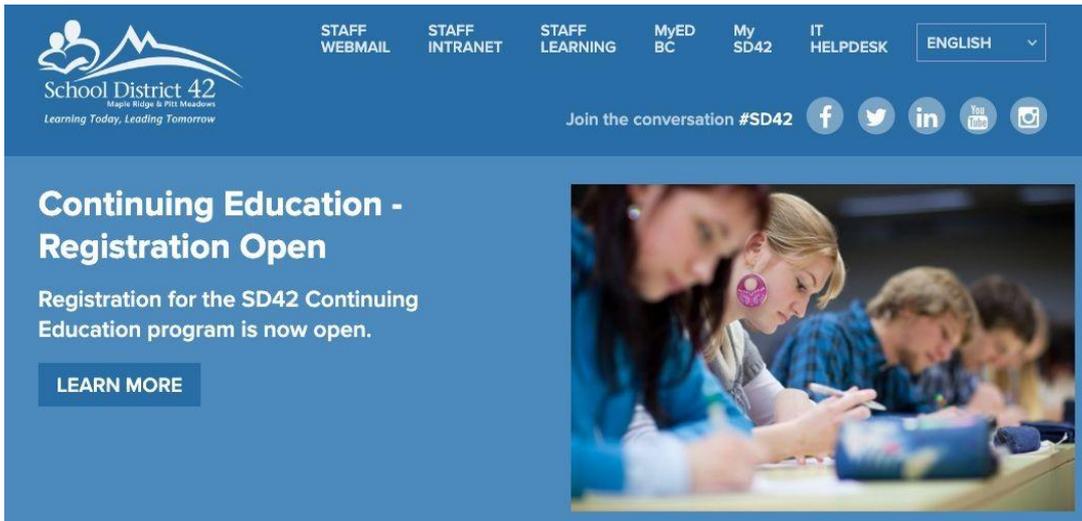


▶ 메이플리지 Winter Camp 소개

1. 메이플리지는 광역 밴쿠버의 12개의 도시 중 하나
2. BC주 유일의 공립 교육청 주최 겨울 캠프 (기간 5주)
3. 캐나다 공립 교육청 정식 수수료증 수여
4. 교육청 소속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 하는 수준 높은 수업
5. 공부와 병행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6. Buddy Buddy 프로그램을 통한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7.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된 최고의 홈스테이
8. 휘슬러, 빅토리아 등 캐나다 명소 투어 등의 종일 액티비티 및 2박 3일 미국 시애틀 투어
9. 모집 학년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1학년
10. 비용 : 1,010만원 (5주)



2) 교육청 소개



SD42 메이플리지 교육청은 초등학교 22개, 중고등학교 6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총 학생수는 약 15,000명이며, 국제 학생은 이중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C주 정규 교과 과정으로, Advanced Placement (AP) 및 IB Diploma, Summer Cultural Experience, Pre-Academic Summer Program, Montessori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Linear 제도로 학기제가 운영됩니다.



3) 프로그램 소개 - 1

<p>ELL 집중 영어수업</p> <p>Intensive English & Practical English</p>	<p>※ ELL이란?</p> <p>ELL이란 English Language Learning의 약자로서, ELL 교육은 캐나다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필수 정부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p> <p>영어의 4대영역인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를 커리큘럼에 맞추어 교육청 소속 선생님과 함께 3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캠프 내 수업은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ELL 커리큘럼을 사용하게 됩니다.</p>
<p>레벨테스트</p> <p>Level Test & Class 배정</p>	<p>캠프 시작 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레벨 테스트와 도착 후 실시되는 추가 레벨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확실히 평가합니다. SLEP 테스트 형식으로 문법, 읽기, 단어 등 읽고 푸는 문제와 듣고 푸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p>테스트 결과에 따라 영어실력이 비슷한 15~20명씩(모집 인원 에 따라 수업 인원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한 반을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p>
<p>우수한 강사진</p> <p>Tutor & 교육청 자체 교재</p> <p>Materials</p>	<p>오랫동안 국제 학생에게 영어를 지도해온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 (사립 학교 또는 사립 학원 선생님, 또는 현재 대학 재학중인 아르바이트 학생이 아닙니다.) 수업을 진행합니다. 캐나다 공립교육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ELL 영어교재는 쓰기, 어휘, 문법 향상을 위한 실질적 말하기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p> <p>홈스테이 생활에 필요한 회화 연습과 여행에서 유용한 화법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캐나다의 문화, 자연 환경, 역사 등 겨울 캠프에서 영어권 국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폭넓은 주제로 수업이 진행 됩니다.</p>

3) 프로그램 소개 - 2

캐나다 홈스테이
캐나다 문화체험
Homestay
Experience

교육청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홈스테이를 선정합니다. 단순히 숙박을 해결하는데 의미를 두지 않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진정한 캐나다 문화를 실제 생활에서 체험해보고, 영어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짧은 캠프기간이지만 홈스테이 가족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저녁을 제공 받으며 홈스테이 상황과 참가자 인원 에 의해 2인, 3인 혹은 4인 1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학생들의 등하교는 홈스테이 또는 교육청 선생님들의 라이드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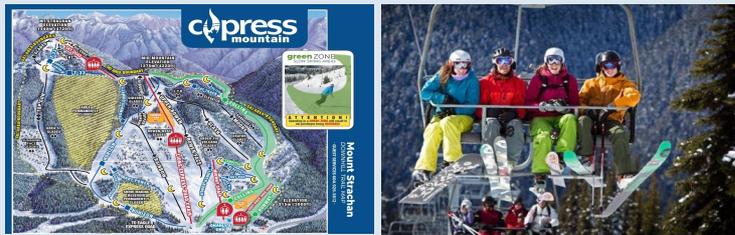
3) 프로그램 소개 - 3

Cultural Program

사이프레스 마운틴 스키 강습 - 토요일 종일

자연과 함께하는 캐나다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사이프레스 마운틴은 밴쿠버 도심과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의 프리 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이 개최된 곳입니다.

초중급자들을 위한 다양한 코스가 있어 스키 강습 및 기존 스키어들이 캐나다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스키장입니다.



캐필라노 브릿지 - 토요일 종일

캐필라노 강 위 70m 높이에 자리하고 있는 137m 길이의 현수교로,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 파크'의 명물입니다. 다리 아래 펼쳐진 아찔한 풍경과 주변의 울창한 숲 배경으로 멋진 기념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연간 80만 명 이상이 찾는 인기 관광 명소로, 연말 · 연초의 야간 일루미네이션 '윈터 라이트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방문하면 반짝이는 조명 속에서 강의 물안개와 함께 몽환적으로 빛나는 다리의 아름다운 야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투어 - 평일 종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BC)의 행정적 수도로 밴쿠버의 남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년층이 여생을 보내는 휴양도시로 경치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수천가지 식물을 볼 수 있는 부차드 가든은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3) 프로그램 소개 - 3

Cultural Program

2박 3일 시애틀 투어

1907년 개장하여 시애틀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100년 넘게 운영을 지속해온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는 오리지널 로고를 지키고 있는 스타벅스 1호점, 생선을 주문하면 던져서 주고 받는 플라잉 피쉬 마켓(Flying Fish Market)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어패류 등이 풍부하며, 각종 장신구 등이 진열되어 있는 활기찬 시애틀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휘슬러 투어

휘슬러 산과 블랙콤 산은 총 35개의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스키 리조트 지역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으며, 여름에는 산악 자전거, 하이킹, 골프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고,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 보드, 크로스 컨트리, 아이스 스케이트, 패러글라이딩, 스노우 모빌, 눈썰매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휘슬러 빌리지 내에는 80여개나 넘는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식도락을 즐기실 수 있으며, 200여개의 상점에서 수공예품과 의류 등 다양한 아이템의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 Science World

밴쿠버 다운타운은 환하게 빛나는 불빛과 고층 건물, 곳곳의 항구 지역 등 볼거리가 많고 활기찬 느낌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도시 곳곳에 주요 명소와 인기 관광지가 늘어서 있습니다. Science World는 1986년 세계 박람회의 엑스포 센터로 세워져 현재는 다양한 주제의 과학 전시 및 멋진 야경을 자랑하는 밴쿠버의 명소입니다.



3) 프로그램 소개 - 3

Cultural Program

Buddy Buddy 프로그램

매주 1회, 캐네디언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음식도 만들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캐네디언 친구들은 메이플리지 엘레멘터리 또는 세컨더리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사전 접수를 받아 선별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메이플리지 공공 시설(도서관, 문화시설) 투어

메이플리지 내에 위치한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직접 책을 빌려보며 현지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엿보는 시간입니다.

메이플리지 체육시설 체험 - Planet ICE

메이플리지 내에는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Planet Ice가 있습니다. 컬링, 스케이트 등 동계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밴쿠버 대학 탐방 - UBC 또는 SFU

캐나다 BC주를 대표하는 대학으로는 UBC와 SFU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학으로 학생들이 직접 캠퍼스 투어를 하고, 재학생들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며 궁금한 점들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Fort Langley National Historic Site

Fort Langley National Historic Site는 1827년에 건설된 포트 랭리의 예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명소로서 허드슨 베이 컴퍼니의 모피 교역소 시작된 밴쿠버와 캐나다의 역사를 알기 쉽게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타 익스트림 스포츠

캐나다에서 즐겨보는 볼링은 어떨까요? 또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Laser Tag, 고카트, Air Park 체험 등 학생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됩니다.

프로그램 구성

캐나다 공립 교육청 주최



- = 광역 밴쿠버 내 공립교육청의 유일한 캠프
- = 약 1만 5천명 학생 중, 국제학생 비율은 2% 미만
- = 교육청 소속 선생님이 직접 지도

집중 ELL & Cultural 프로그램



- = 캠프 학생만을 위한 집중 ELL 프로그램
- = Buddy 프로그램, 스키장, 명문 대학교 및 도서관 방문 등 문화체험을 위한 액티비티 매일 진행 [일요일 제외]
- = 캐나다 공립교육청 정식 수료증 수여

검증된 홈스테이



- = 1993년부터 국제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홈스테이 다수 확보
- = 교육청 등교 가이드 지원

일일 스케줄

“5주 캠프 [2025년 1월6일(월) ~ 2월6일(목)]”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내용
: 말하기 / 읽기 / 듣기 / 쓰기 [레벨에 따라 반 배정 후 수업]



매일 액티비티
: 캐나다 문화 체험을 위해 도서관, 대학교, 마트 방문 등 체험 학습



Full-Day 액티비티
: 토요일 및 수업 이외 일정에 다양한 액티비티 진행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월6일(월) - 2월6일(목)							
8:30-14:30	English-Language Learner (ELL) Classes & Lunch Break [3주 / 총 수업일수 15일]					Full-Day Activities	홈스테이와 함께
14:30-17:00	Daily Activities						
17:30-20:00	홈스테이 쿼가 & 저녁식사						

* 캐나다 도착 & 홈스테이 배정
2025년 1월6일(월)

* 교육청 공식 ELL 수업
2025년 1월8일(수) - 1월29일(수)

* 미국 씨애틀 투어
2025년 2월3일(월) - 5일(수)

* 한국으로 출발 :
2025년 2월6일(목)

2. 캠프 Daily 스케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	7	8	9	10	11	12
도착 / 홈스테이 배정	오리엔 테이션 [교육청 강당]	교육청 ELL 수업 시작 / Buddy Buddy / Haney Place Mall	교육청 ELL 수업 / Laser Tag	교육청 ELL 수업 / 아이스 컬링 체험	사이프레스 마운틴 스키장	홈스테이와 함께
13	14	15	16	17	18	19
교육청 ELL 수업 / 메트로 타운 투어	교육청 ELL 수업 / Fort Langley National Historic Site	교육청 ELL 수업 / Buddy Buddy / 알루엣 레이크	교육청 ELL 수업 / 로히드 한인 타운	교육청 ELL 수업 / 아이스하키 관람 (불가 시 다른 액티비티로 대체)	캐필라노 브릿지	홈스테이와 함께
20	21	22	23	24	25	26
교육청 ELL 수업 / Air Park	교육청 ELL 수업 / 스케이트	교육청 ELL 수업 / Buddy Buddy / 코퀴틀람 도서관	교육청 ELL 수업 / Bowling	교육청 ELL 수업 / 고카트	Science World [다운 타운]	홈스테이와 함께
27	28	29	30	31	1	2
교육청 ELL 수업 / 코퀴틀람 쇼핑센터	교육청 ELL 수업 / Zero Late ncy VR Langley	교육청 ELL 수업 / 수료식 및 종강 파티	휘슬러 투어	빅토리아 투어	밴쿠버 대학 투어 (UBC, SFU)	홈스테이와 함께
3	4	5	6			
미국 시애틀 투어			귀국			

- 상기 Daily 일정은 날씨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상 이변, 폭설 등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이동이나 등교가 제한 되는 경우, 학생들은 관리자의 감독하에 홈스테이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집에 머물게 됩니다.)
-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출/도착 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홈스테이 가정의 사고 및 상황에 의해 임시 방편으로 다른 홈스테이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3. 안전하고 즐거운 홈스테이 생활

참가 학생들이 원하는 조건에 최대한 알맞은 캐나다 현지 가정을 선별해서 홈스테이 추천하며, 인솔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편안하고 쾌적한 홈스테이 환경이 유지되도록 항상 체크합니다.

모든 홈스테이는 캐나다 경찰 당국에 범죄 사실 증명서를 받아 범죄 사실과 신분의 확실성을 확인한 후에 홈스테이로 선정이 됩니다.

캐나다 밴쿠버 홈스테이 가정들은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문화의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스테이에서 머무는 기간 중에, 학생들을 본인들의 자녀나 친척이라고 생각하여 예의 없는 행동 또는 부적절한 옷차림에도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홈스테이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홈스테이와 친해진 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인 이메일과 전화 연락을 통해 평생 친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인~4인 1가정/ 1일 3식 제공)



※ 작은 배려와 글로벌 에티켓으로 소중한 홈스테이 경험 만들기

-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홈스테이 가족들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 영어를 못해도 부끄러워 말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홈스테이 생활을 하도록 해요.
- 즐거운 홈스테이 생활은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에티켓만 지켜주면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샤워를 할 때는 너무 오랜 시간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적당하게 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캐나다 학생들의 취침시간은 9시 정도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내거나 떠들면 실례입니다.

홈스테이에서 식사 양이나 본인의 기호 음식 등을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는 음식이 나왔는데도 맛있게 먹는 척을 할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더 먹어도 된답니다.

저녁시간에는 오늘 있었던 일이나 다음날의 일정에 대해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많은 조언을 주고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알고 가면 도움되는 Homestay 에티켓 !

한국에서는 홈스테이라는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홈스테이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즐겁고 편안한 홈스테이 생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족들과도 그렇듯 최소한의 예의만 지킨다면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한국문화는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참고 넘어가거나 돌려서 말하는 것이 예의지만, 캐나다 홈스테이 생활에서는 예의는 갖추되, 분명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불만 중 하나가 음식입니다. 국적이 다른 만큼 음식문화도 많이 달라서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캐나다 아침은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들이 씨리얼이나 토스트를 제공합니다. 저녁식사는 일반적으로 6시 전후에 든든하고 다양한 식단으로 제공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비교적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날 점심을 위해서입니다. 저녁을 먹고 남은 음식을 “Left over”라고 하는데, 이 음식을 점심으로 싸가거나 샌드위치 혹은 다른 음식으로 대체합니다.

캠프 진행되는 동안 때때로 한식 도시락, 간식 등 한식을 먹을 예정이오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HOMESTAY RULES

- 거실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니 항상 깨끗하게 사용해주세요
- 외출 시 모든 전자제품 코드를 뽑아주세요. (캐나다는 목조건물이라 화재위험이 크답니다.)
-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방음이 잘 되지 않아요! 소음에 유의해주세요.
- 저녁 9시 이후에는 큰소리를 낸다거나 음악을 크게 듣는다든지 샤워를 삼가 해주세요.
- 홈스테이 가정의 물건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 캐나다는 한국과는 다르게 화장실에 배수시설이 없어요.
- 화장실 사용 후, 세면기 주변 물기는 수건이나 휴지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 다른 홈스테이로 개별 방문은 하지 않도록 해요.
- 홈스테이마다 조금씩 다른 규칙이 있으니 서로 오해 없이 잘 지내려면 홈스테이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맞춰나가면 된답니다.
- 모두 기본적으로 당연한 예의입니다. 이것들만 지켜주신다면 캐나다 생활 동안 문제 없이 홈스테이 가족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